

말을 아끼는 책, 종이를 아끼는 출판

최원식

문학평론가·인하대 교수

언젠가 「녹색평론」을 읽다가 뉴욕타임즈 일요판을 한번 낼 때마다 캐나다의 숲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구절에 새삼 놀란 적이 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70년대만 하더라도 저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 그만큼 우리 출판문화가 바야흐로 대중화의 길목에 들어선 시기인데도 그러했으니, 그전 시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 영세성과 함께, 아니 그로 말미암아 저절로 몸에 밴 미덕으로, 글을 짓고 책을 남기는 일에 대한 어떤 열정성이 엄연히 존중되었던 것이다.

옛 선비들은 흔히 자기 책에 '잡기'나 '패설'이니 '소설'이니 하고 겸손한 제목을 붙이기를 즐기고, 그 서문에는 자신의 책이 간장병 종이마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겸사했지만, 지금 우리의 보견대 그들은 모두 일세의 명문이요 불후의 고전이다. 요컨대 옛 지식인들은 책의 이윤가치,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글 또는 책이 가장 무서운 비평가인 시간의 엄혹한 채찍을 견딜 수 있을지, 엄격한 자기검열의식을 견지했던 것이다. 역대 독재권력이 사상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배편 검열제도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지만, 그를 빌미로 글 쓰는 자들이 그 기본적 미덕인 자기검열로부터도 해방되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옛 선비들은 생전에는 저서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관 뚜껑을 덮어야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속언처럼, 그가 죽은 직후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그가 남긴 글들을 광범하게 결집, 고전적 가치가 있는 글들을 엄선하여 개인문집, 즉 단독저서를 비로소 상재했던 것이다.

고전이란 무엇인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종족의 방언적 경계를 넘어,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사람들의 영혼마저 매료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전이라 이를 터이다. 출판자본의 영세는 기본적인 결손이지만, 글 짓고 책 내는 일의 엄숙한 자각을 높이 들어올린다는 점에서 한편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서를 좋아한다. 좀스런 玩物취미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모르되, 옛 책, 아니 50년대의 문학서적에조차 알 수 없는 향기가 떠돈다. 비록 인쇄술이나 제본술 등이 요즘에 비해 다소 손색이 있다손쳐도, 책의 곳곳, 심지어 인지에서조차 글쓴이와 만든이의 정성스런 노고가 갈피갈피 서려있는 것이다.

요즘은 어떤가? 우리는 활자매체의 홍수라는 말이 결코 수사학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 출판자본과 지식인사회의 실력이 예전보다 진보했다는 반가운 증거이기도 하지만, 혹시 과잉 거품이 아닌가,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여기서 통속물은 논외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출판되는 모든 책들이 양서로 될 수는 없음에도, 요사이 글 쓰는 이나 출판사나 너무나 쉽게, 겁없이 책을 내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짚어야 할 일이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힘을 적절히 배분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지식을 다루는 사람, 특히 지식을 바탕으로 구극적인 지혜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적 모험에 투신하기를 결심한 사람이라면 말을 아껴야 한다. 있는 지식을 모조리, 아니 이는 것 이상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사람의 책, 그런 책들에서 우리는 책을 읽는 기쁨은커녕 눈과 영혼을 엄습하는 피로에 빠질 뿐.

집더미처럼 쌓여가는 불쌍한 책. 아니 헛벗은 숲을 보면서, 청량한 새벽의 숲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선하게 할 양서가 그렇다. 이 그리움이야말로 UR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출판문화가 양적인 거품에서 질적인 엄격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창조적인 변신의 근본 바탕의 하나로 될 것이다.

표지인물	2	불문학 연구 한평생의 학문적 온축 「문학을 찾아서」 펴낸 정명환교수
리뷰	4	동학백주년 맞아 점검해본 동학관련도서 한국근현대사 연구중 가장 많은 성과 나온 분야
초점	6	「서울대 추천도서목록」 과연 문제는 없는가 고전읽기 활성화연구의 중간결과로 개선과 침착 필요
화제의 책	7	한길사 펴낸 '한길 그린북스' 시리즈
서평	8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최 철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연구」— 이준식
	9	하이젠베르크 「현실의 질서」— 김용준
	10	방정오 「중국소설비평사략」— 김언중
	11	상허문화회 「이태준문학연구」— 이재선
	11	김병익 「숨은 진실과 문학」— 진형준
출판화제	12	출판학 학위논문 어떤 것들 나와있나 중앙대 등 3개대 대학원서만 10년간 74명의 석사 배출
이 책 그 사람	14	「길 없는 길, 실크로드」 펴낸 이지상씨 「新실크로드」 펴낸 이길구씨
	15	「한국의 매춘」 펴낸 박종성교수 「꿈꾸는 달팽이」 펴낸 권오길교수
출판사초대석	16	신간 물량 엄청난 사회과학출판의 한 산맥 언론학 전문 명성에 다양성까지 겸비한 남남출판사
얼굴	16	돌산을 캐듯 불모의 전문출판 일궈온 조상호사장
해외출판	18	이동도서출판의 새 가능성 '액티비티북'— 유은영 놀이와 학습의 결합으로 길수록 시장규모 확대돼
세계의 출판	20	천년왕국 꿈꾼 한 신앙공동체의 실상— 배병삼 「오네이다 공동체의 탄생과 멸망」
독자서평	22	이병훈 지음 「유전자들의 전쟁」 외
	24	화제의 신간
	26	신간안내
	34	200자 안내
	36	신간목록
뉴스초점	4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국회 통과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